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22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주담대 7% 폭풍' 대피처 떠오른 보금자리론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6JxSjj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월 1조원 중후반대였던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올해 들어 매월 2조원 중반대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 중
시중은행의 금리인상에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하고 1금융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향후 정책대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포용금융 확대 위해 … 이억원 "잔인한 금융구조 재설계"
매일경제 https://zrr.kr/lx3Lhm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잔인한 금융'에 대해 경고장을 내밀자 이억원 금융위장이 대한민국 금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의 대수술을 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전성 규제 완화부터 지배구조 개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

케뱅·SBI도 연내 출시…이재명표 '생계비통장'에 전 금융권 동참
매일경제 https://zrr.kr/xCaTEX

압류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의 최소 생계비 보호 위한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아직 내놓지 않은 케이뱅크와 SBI저축은행도 올해 내 상품 출시 목표로 준비·검토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따른 도입으로 시중·국책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넘어 제2금융권과 인뱅 등 전 금융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서는 모습

책임준공 '청구서' 받은 은행계 신탁사…PF 부실에 건전성 흔들
서울경제 https://zrr.kr/slZuFX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장기화하면서 은행계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
부동산 호황기 금융지주의 신용도를 앞세워 확대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장이 공사 지연과 분양 부진에 막히면서 부실 부담이 신탁사로 전이된 영향

'동학개미 시즌2'… 외국인 매도에도 증시 판 바꾼 'ETF 머니'
조선비즈 https://zrr.kr/GX16Hi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에도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과거엔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 증시 방향이 결정됐지만, 장·단기 가계 자금이 대거 증시로 향하면서 ETF 중심으로 한 국내 자금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

7월부터 중복상장 금지… 외국인도 국내 ETF 직구 허용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Ldr8tb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기존 주식에서 ETF까지 확대 예정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통합계좌를 통한 누적거래대금은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 수준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84.7%…"1년 넘게 손실구간"
뉴시스 https://zrr.kr/anyvrb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순 평균치는 84.7%로, 지난해 4월 이후 80%대를 넘어서는 손실 구간이 1년 넘게 지속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자동차 수리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손보업계의 수익성 부담은 커지는 모습

손보업계, 국내 선박 '호르무즈 통항' 보장…최저 요율 적용
한국경제TV https://zrr.kr/psVMlt

국내 손보 10개사가 우리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해 위험을 분산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보장하는 데에 합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있어 미-이란의 협상 전개양상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만큼, 국적 선박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억원, '금가분리' 사실상 폐지 시사
한국경제 https://zrr.kr/rCuQUp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제한해온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지할 뜻을 내비친 모습
사실상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토큰화 MMF "스테이블코인 옆자리 노린다"
한스경제 https://zrr.kr/Wl2hAJ

토큰화 MMF의 운용자산(AUM)은 지난해 11월 기준 86억달러로, 같은 해 1월 40억달러에서 110% 증가
토큰화 MM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담보·결제 수단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